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b>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 시행</b>	요코하마
문화·디자인	5	'창의적인 도시: 문화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에 기반한 문화정책 수립	시드니
	6	국제추리문학축제 '추리물의 플랫폼' 개최를 통해 추리문학의 도시라는 지역브랜드 창출	리옹
	7	도립도서관 이용안내 및 견학 동영상 프로그램, '버추얼 나비'와 '버추얼투어' 공개	도쿄
산업·경제	9	<b>소비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출시</b>	도쿄
	11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도쿄도 소비생활 기본계획' 개정	도쿄
건강·복지	13	더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 소비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실시	시카고
행정·재정	14	<b>공공건물 관리 백서 제작</b>	요코하마
방재·안전	16	외국인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 초동 대응 매뉴얼' 제작	도쿄
도시환경	17	<b>도시의 스모그를 흡수하여 안전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건물 건축</b>	멕시코시티
	19	시민 공모를 통해 맨홀 뚜껑 디자인 개선	밴쿠버
도시교통	20	'걸어서 즐거운 마을 존' 사업 확대 및 공모를 통해 사업로고 선정	교토
도시계획·주택	22	<b>육아안심맨션 인증제도 시행</b>	오사카
	24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	레겐스부르크

## 헤드라인뉴스 (산업·경제)

### 1.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 시행 (일본 요코하마市)

- 요코하마市는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해 市에서 인증을 주는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는 지역과 기업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계하여 풍요로운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 3월 현재 총 2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음.
  -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란 요코하마市 시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지역기업과의 거래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지역을 의식한 경영”을 추진하고, 지역환경 보전, 자원봉사과 같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업체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임.
  - 요코하마市는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을 ① 지역과 사회를 의식하고, ② 지역공헌의 관점에서 사회사업에 공헌하며, ③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지역공헌기업의 인증기간은 2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갱신이 가능함.
  -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① ‘요코하마市’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참여하는 기업을 평가함, ② ‘요코하마市’가 직접 제도를 운영함, ③ 요코하마市와 요코하마시립대학 CSR센터 유한책임조합(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공동으로 규격

을 제정함, ④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IDECE), 요코하마市, 요코하마市 상공회의소, NPO법인 요코하마 표준추진협의회, 요코하마시립대학 CSR 센터 유한책임조합 등 5개 기관이 본 제도를 위하여 공동 협력함, 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증기업을 선정함, ⑥ 인증방법에 “경영 시스템 구축” 항목을 포함함, ⑦ 일정한 연수·시험을 받은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실시함.

○ 지역공헌 기업의 평가항목은 크게 시스템 평가와 지역성 평가로 나뉘며, 두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

- 시스템평가는 신청기업에 배포하는 “지역지향 CSR 경영시스템 규격”에 따라 지역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Plan → Do → Check → Act 구조)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주요 평가사항은 ① 지역과 사회에 대한 관점을 종합한 경영비전 수립 및 홍보 여부, ② 지역과 사회를 의식한 사업 활동 조직시스템 구축 여부, ③ 회원의 인식 제고 및 인재육성 실시 여부, ④ 사규, 지침 작성 및 홍보 등임.

- 지역성 평가에서는 지역공헌활동 상황을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지역성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지역성 평가항목 중 “중요”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공헌, 지역활동·지향” 등 2개 항목은 모든 신청기업이 필수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며, 나머지 항목(아래표 참조)들은 지역지향성, 지역한정성, 지역성비율 등 3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임.

· 신청기업은 우선 “시스템 평가”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지역성

평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지역성 평가에서 7개 항목 이상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최상위인증”, 5개 항목 이상은 “상위인증”, 3개 항목 이상은 “표준인증”을 받을 수 있음.

<지역성 평가항목의 내용>

구분	항목	내용 예
필수	규정(compliance)	규정(법령)준수선언서 납세증명서
중요	지역사회 공헌	지역 자원봉사 문화사업, 기부활동
	지역활동·지향	업자 선정(지역기업을 우선시 함) 지역브랜드 판매
	고용	여성의 활약 촉진 (예: 요코하마市 굿발란스상 인증) 출산·육아지원제도 개호지원제도 고령자·장애인의 적극적 고용
	환경	인증(ISO 등) 지역 환경활동 참여 재활용
	품질	인증(ISO 등) 고령자를 배려한 제품 건강을 고려한 제품
일반	재무·업적	흑자 결산 출납장부 작성의 분리
	노동안전위생	인증취득(OHSAS 등) 건강·노동상담창구 설치
	소비자·고객대응	고객대응창구 설치 고객대응 교육·훈련제도
	정보보안	PC·문서 관리 고객정보관리 등

-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 부여, 인증기업간 네트워크의 기회 부여, 세미나 참여, 홍보지원, 용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에 따른 지원>

혜택	세부내용
인증서·인증마크 부여	요코하마시가 평가항목의 체크 수에 따라 “최상위 인증”, “상위인증”, “표준인증” 인증서·인증마크를 부여함 
인증기업 간 네트워크	인증기업 간 교류회를 년 1~2회 실시함
인증기업 한정 세미나 실시	대학교수, 실무자 등 전문가가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테마중심 강의 실시, 연간 수차례 무료수강 가능
IDEC 주최 세미나 할인 수강	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일부) 무료수강 가능
홍보 지원	요코하마시와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이 인증기업의 활동 소개
저리융자	소정의 이율로 저리융자 실시 · 금리: 2.1% 이내 · 최장대출기간: 7년 · 한도: 8,000만 엔(약 9억 4,500만 원) “최상위평가” 인증기업은 1억 엔(약 11억 8,000만 원) 이내 · 보증료율: 요코하마 신용보증협회가 정하는 소정의 비율 “최상위평가” 인증기업은 상한 100만 엔(약 1,180만 원) 한도에서 요코하마시가 50%의 보증료를 지원함

- 이 밖에도 요코하마시는 우수한 사업자를 공사입찰에서 우대하는 “인센티브 발주” 제도의 조건 중 하나로, ‘인증기업’을 입찰 참가조건에 제시하고 있음.

([www.city.yokohama.lg.jp/keizai/happyou/h24/250315keisou.html](http://www.city.yokohama.lg.jp/keizai/happyou/h24/250315keisou.html))

([www.idec.or.jp/keiei/csr/](http://www.idec.or.jp/keiei/csr/))

## 문화 · 디자인

‘창의적인 도시: 문화정책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에 기반한 문화정책 수립  
(호주 시드니시)

- 시드니시는 2010년과 2011년에 ‘국제 축제 및 문화행사 협회(International Festival and Events Association)’에 의해 세계 최고의 축제 및 문화도시로 선정됨. 시는 창의와 문화의 세계 중심지로서의 명성과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창의적인 도시: 문화 정책 초안’(Creative City: Cultural Policy Discussion Paper)을 발표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3년에 도시 문화정책을 수립할 계획임.
- 지난 3월 25일 발표된 문화정책 초안은 ① 문화활동 접근성 향상 및 문화시장 개혁, ② 새로운 창작활동 참여 경로, ③ 창작 경제 활성화, ④ 문화와 창작 표현을 통한 도심 구역 조성, ⑤ 큰 구상을 위한 파트너십, ⑥ 지속 가능한 발전, ⑦ 지식 공유, ⑧ 세계적 참여 등 여덟 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기초 원칙을 담고 있음.
- 시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시민참여에 기반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문화생활이 어떤 것인지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온라인(sydneyyoursay.com.au)에 적극적으로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악기 대여, 야간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야간 어린이 집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음.
- 시는 이와 더불어 일반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문화 및 예술 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번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도 구상하고 있음. 즉, 더욱 풍부하고 창의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술가 등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시드니에서 거주하면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과 지역사회 문화자산들이 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 등이 고려되고 있음.
- 창작 산업은 시드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의 하나로서, 2012년 한 해에 시에 약 8,200만 달러의 경제적인 기여를 했으며, 2030년에는 그 규모가 14,9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2011년 인구 총조사에 의하면, 시

드니 도심에는 3만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창작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6년 인구 총조사에 비해 22.2% 증가하였음. 또한, 시드니 시민의 문화행사 참여율도 대부분의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www.sydneymedia.com.au/we-want-your-ideas-for-a-more-cultural-and-creative-city/](http://www.sydneymedia.com.au/we-want-your-ideas-for-a-more-cultural-and-creative-city/))

### 국제추리문학축제 ‘추리물의 플랫폼’ 개최를 통해 추리문학의 도시라는 지역브랜드 창출 (프랑스 리옹市)

- 리옹市는 추리문학 강연, 탐정영화 상영 등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 추리문학 축제 ‘추리물의 플랫폼’(Quais du Polars) 행사를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음.
- 이번 행사에는 프랑스 작가뿐 아니라, 영미권과 특히 아시아 작가들까지 초청하여 세계 각국의 장르문학 작가, 영화감독 등이 대거 방문함으로써 문학뿐 아니라 아시아의 누아르 영화, SF나 판타지 소설 등 B급 장르예술들이 서로 주고받은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또 프랑스 쿨튀르(France Culture) 라디오 방송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 저자강연회 등의 각급 행사를 프랑스 전국에 방송함으로써 지역축제에 머물지 않고 유러피언 메트로폴리탄으로서 리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기회가 되었음.
- 이번 축제에서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장르문학을 대상으로 한 만큼, 별도의 행사장 없이, 상공회의소와 시청, 리옹 오페라하우스의 대강당과 시청 광장 등을 활용해 실용적인 지역축제 기획의 묘를 보이기도 했음.
- 리옹市는 20세기 초반 뤼미에르 형제가 최초로 영화 예술을 만들어낸 도시이자 프랑스에서 법의학과 범죄인류학이 시작된 곳이고, 유럽을 대표하는 인쇄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하여 이 축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추리문학의 도시라는 지역 브랜드를 창출했음.
- 무엇보다 리옹의 여러 대학에 자리한 연구자들이 직접 강의하는 추리문학과 인문학 관련 강연, 추리문학과 법의학 관련 강연, 경찰학교 학생들의 시범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장르문학 팬들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으며, 또한 방문객들이 도시에서 일어난 가상범죄를 도시 곳곳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추적하면서 범인을 찾고, 또한 리옹의 매력을 발견하게 한 프로그램은 일반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음.

- 이번 축제는 일부 필름상영과 박물관 내 몇몇 문화행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무료로 개방되어 도시 방문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음.



([www.lyon.fr/evenement/festival/quais-du-polar-2.html](http://www.lyon.fr/evenement/festival/quais-du-polar-2.html))

([www.extralagence.com/quaisdupolar/](http://www.extralagence.com/quaisdupolar/))

### 도립도서관 이용안내 및 견학 동영상 프로그램, ‘버추얼 나비’와 ‘버추얼투어’ 공개 (도쿄都)

- 도쿄都 교육청은 중앙도서관, 타마(多摩)도서관 등 2곳의 도립도서관을 대상으로 도서관을 처음 접하는 도민들도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서비스 이용방법을 소개하는 “버추얼 나비(Virtual navigation의 약자, バーチャルナビ)” 동영상 이용안내 시스템과 평상시 접하기 어려운 희귀자료 및 도립도서관 고유사업을 소개하는 “버추얼 투어(Virtual tour, バーチャルツアー)” 동영상 도서관 견학 시스템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

- “버추얼 나비”는 중앙도서관, 타마도서관의 입장안내, 각종 안내, 장서 검색, 서고·자료 이용방법, 서류 신청방법 등 도립도서관의 이용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 프로그램으로, 도서관 평면도에 중요 포인트를 설정하여 각각의 포인트에서의 이용방법을 각각 2분씩 동영상으로 설명해 줌.

- “버추얼 투어”는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도서관 서가에서 책을 찾는 듯한 가상투어를 체험할 수 있는 동영상 프로그램임. 특히 도쿄都 중앙도서관에서 일반인의 입실이 금지된 지하 전동서고(電動書庫), 특별문고실(特別文庫室)의 중요자료를 볼 수 있으며, 자료보전실에서 이루어지는 책벌레 흔적 보수작업 시연 동영상도 관람이 가능함. 타마도서관에서는 도쿄매거진뱅크(東京マガジンバンク) 잡지 창간호 컬렉션 및 철도잡지, 아동·청소년용 입체그림책, 종이연극 등도 소개하고 있음.
- 본 동영상 시스템은 2013년 3월 27일 오후 2시부터 도립도서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동영상으로 보는 도립도서관(動画で見る都立図書館)” 배너를 클릭하여 접근할 수 있고, “버추얼 나비”는 도서관 각종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층의 평면도가 표시되어 원하는 위치를 클릭하여 동영상을 관람할 수 있음. 도쿄都 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을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개함.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보는 법 설명자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r6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r6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DATA/20n3r600.pd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DATA/20n3r600.pdf))

([www.library.metro.tokyo.jp/](http://www.library.metro.tokyo.jp/))

# 산 업 · 경 제

## 2. 소비생활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출시 (도쿄都)

○ 도쿄都 생활문화국은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즐기면서 올바른 소비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쿄都 공식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지켜라! 슈마 & 에르메(まもれ! シューマ&エルメ)”를 출시하였음.

- 최근 도쿄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비자를 노리는 신종 악질상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는 피해를 입어도 이를 신고하거나 상담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도쿄都是 도쿄都 공식 트위터, 페이스북 개시에 이어, 일본에서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쿄都의 소비생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 스마트폰용 무료게임 어플리케이션 “지켜라! 슈마 & 에르메”를 개발하여 3월25일부터 시민에게 제공함.

	
<p>[캐릭터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마: 컨슈머(consumer, 소비자)에서 유래함. 끈고 정의감이 강한 성격이지만 조금 덜렁땡.</li> <li>· 에르메: 그리스신화 정보의 신 “에르메스(Hermes)”에서 유래함. 차분한 성격, 냉정하게 사물을 판단할 수 있고, PC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며, 슈마와 함께 도민을 위해 악당들을 물리침.</li> </ul>	

<“지켜라! 슈마 & 에르메” 어플리케이션의 메인페이지 및 캐릭터>

- 게임 어플리케이션은 크게 ① 소비생활 정보 자막뉴스(telop), ② 게임내용, ③ 서브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음.
  - “소비생활 정보 자막뉴스”는 게임화면 상단에 위치한 자막뉴스를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신착정보, 소비자 피해정보, 도쿄都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사업자명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함. 자막부분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이 자막뉴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악질상술이나 초대문구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피해의 사전방지가 가능함. 또한 이동시간이나 대기시간 등의 부담 없이 게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자막뉴스의 예로, 학생을 표적으로 “취업에 유리, 취업에 도움” 등을 미끼로 하여 고액 영어회화교실, 정신수양 강좌 등을 권유하는 사례, SNS로 친구를 가장해 고액 피부관리실을 소개하는 호객사례, 가상의 청구사이트를 만들어 “당신은 18세 이상입니까?”라는 질문에 “예”를 누르면, 고액이 청구되는 사례 소개 등이 있었음.
  - “게임 콘텐츠”는 게임캐릭터인 “슈마”, “에르메”와 함께, 화면상의 대포로 같은 색상의 풍선 3개 이상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형태의 게임으로 게임결과가 매주 랭킹으로 표시됨.
  - “서브 콘텐츠”는 ① 주의할 정보 보기, ② 자주하는 질문, ③ 상담창구, ④ 도쿄생활 웹페이지 등의 코너로 구성됨. “주의할 정보 보기”에서는 최근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피해정보 및 악질상행위 수법과 주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자주하는 질문” 코너에서는 FAQ 방식으로 소비생활센터에 접수된 상담과 답변을 게재함. “상담창구” 코너에서는 도쿄都 소비생활종합센터와 도내의 센터지부의 전화번호를 제공하며 이용자가 클릭할 경우 직접 전화연

락이 가능함. “도쿄생활 웹페이지”는 기타 도쿄都 소비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로 연결됨.



<“지켜라! 슈마 & 에르메”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화면>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ma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ma00.htm))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DATA/20n3ma00.pdf](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DATA/20n3ma00.pdf))

####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도쿄도 소비생활 기본계획’ 개정 (도쿄都)

– 도쿄都 생활문화국은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소비자 관점에 입각해서 ‘생애 주기에 따른 소비자 교육의 추진’ 등 4가지 중점 시책을 포함 ‘도쿄도 소비생활 기본계획’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2013~2017년) 소비자의 안전, 안심의 실현을 목표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도쿄都는 1997년 2월에 ‘도쿄도 소비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인터넷 등의 전자상거래의 비약적인 확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소비자의 의식변화 등 소비 생활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함에 따라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을 개정함.
- ‘소비자 시민사회’는 소비자가 개별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생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소비생활에 관한 행동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 및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를 말함(「소비자 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 도쿄都는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구청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안심의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소비자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실시함.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방문, 전자 상거래의 피해가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폭넓은 연령층의 소비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만,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이 꾸준히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악성 사업자의 시장 배제,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광고 표시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누구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소비자가 소비 행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사회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단순한 지식 제공이 아닌,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함.

- 계획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나, 새로운 소비자 문제의 발생 등 상황 변화 및 국가의 동향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거나 검토할 수 있도록 ‘도쿄都 소비생활 대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함.

- ‘도쿄都 소비생활 대책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학자, 소비자 대표, 사업자 대표 등으로 구성함.

- 도쿄都는 위 심의위원회에 매년 초 각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실적 보고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시책 및 사업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3/70n3t300.htm](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3/70n3t300.htm))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3/DATA/70n3t301.pdf](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3/DATA/70n3t301.pdf))

## 건 강 · 복 지

더 안전하고 몸에 좋은 식품 소비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 실시 (미국 시카고市)

- 시카고市는 비만과 건강문제를 市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로 보고 이의 개선을 위해 ‘Rate My Plate, Chicago’, ‘Healthy Vending Challenge’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리고 있음.
- 시민이 소비하는 음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캠페인인 ‘Rate My Plate, Chicago’에서는 시민들 자신이 만든 음식을 웹페이지에 소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단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좋지 못한 식단 및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보다 건강한 식단 구성을 위한 소셜 미디어 캠페인〉

- 시카고市는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함유된 설탕, 소금, 지방 등의 함량을 낮추기 위해 자판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Healthy Vending Challenge’ 캠페인 등을 통해 자판기 식품의 질을 개선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음.
- 시카고市는 2012년 11월 시의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市가 관리하는 건물과 공공학교시설, 공원에는 가이드라인을 만족하는 음식과 음료가 75% 이상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며, 향후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임.



〈자판기 가이드에 제시되어 있는 스티커의 모습〉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ph/provdrs/healthychicago/news/2013/mar/city\\_of\\_chicago\\_launchescity-widehealthyvendingchallenge.html](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ph/provdrs/healthychicago/news/2013/mar/city_of_chicago_launchescity-widehealthyvendingchallenge.html))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ph/provdrs/healthychicago/news/2013/mar/\\_rate\\_my\\_plate\\_chicago.html](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ph/provdrs/healthychicago/news/2013/mar/_rate_my_plate_chicago.html))

([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ph/provdrs/healthychicago.html](http://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ph/provdrs/healthychicago.html))

## 행정 · 재정

### 3. 공공건물 관리 백서 제작 (일본 요코하마市)

- 요코하마市 재정국 공공시설과는 2012년 11월에 발표한 ‘요코하마市 공공건물 관리 백서(초안)’의 공공 건축물의 현황 및 유지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1개월간의 시민 의견 모집 과정을 거쳐 공공건물 유지, 운영 상황에 대한 분석 결과 및 시민 의견 모집의 결과를 반영한 ‘요코하마 공공건물 관리 백서’를 완성함.

- 공공건물 관리 백서 제작은 1965~75년대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정비한 엄청난 양의 공공 건축물이 동시다발적으로 노후화되어 시설 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가운데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건축물의 보전 및 재건축 진행 방향 설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임.

- 요코하마市가 보유한 공공 건축물은 총 2,500시설, 연면적 약 1,000만㎡로서, 학교시설(518시설, 370만㎡), 시민이용시설(451시설, 110만㎡), 사회복지시설(302시설, 36만㎡) 등이 있으며, 이중 60% 정도가 1965~75년 사이에 정비된 시설임.
- 유지비용(공공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검, 수리, 보수 등의 비용)의 수준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시설의 수와 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시설의 수와 양에 적합한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등의 미래지향적,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게 됨.
- 공공건물 관리 백서는 공공시설의 현황 파악, 공공 건축물의 정비 상황과 보전 노력 상황, 공공 건축물 용도별 실태 파악, 공공건물 과제 정리 및 해결을 위한 대안, 공공 건축물의 시설 정보 목록 등을 담고 있음.
- 공무원, 공공시설 관련자,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 5월부터 인쇄본을 제작하여 시청, 구청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임.

([www.city.yokohama.lg.jp/zaisei/org/kokyo/hozenrikatuyo/pdf/hakusho-saishu.pdf](http://www.city.yokohama.lg.jp/zaisei/org/kokyo/hozenrikatuyo/pdf/hakusho-saishu.pdf))

([www.city.yokohama.lg.jp/zaisei/org/kokyo/hozenrikatuyo/kenchikubutsuhakusyo.html](http://www.city.yokohama.lg.jp/zaisei/org/kokyo/hozenrikatuyo/kenchikubutsuhakusyo.html))

## 방 재 · 안 전

### 외국인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 초동 대응 매뉴얼’ 제작 (도쿄都)

-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도쿄에서 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숙박 시설을 비롯한 관광 관련 사업자가 원활하게 안내·유도·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숙박 시설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재해 초동 대응 매뉴얼’을 제작함.
  - 도내 숙박 시설을 비롯한 관광 관련 사업자에 매뉴얼을 배포함으로써 도내 관광의 안전성을 향상하고, 외국 관광객이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도록 하며,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전한 관광지 도쿄’ 실현을 목표로 함.
  - 2,000부를 인쇄하여 도내 숙박시설, 관광 협회, 구청 등에 우선 배포하고, 웹사이트(Go Tokyo - <http://www.gotokyo.org/>)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도내 각지의 숙박 및 관광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뉴얼 활용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매뉴얼의 활용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재해 초동 대응 매뉴얼’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숙박 시설을 비롯한 관광 관련 사업자가 ‘해야 할 일’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여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재해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 점검을 실시함.
  - 지진을 비롯한 재해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기초 지식 제공을 위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여행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게재함.
  - 초동 대응 관련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위하여 재해 발생 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웹사이트를 게재함.
  - 재해 발생 시 대응 예문을 4가지 언어(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표현하는 픽토그램(그림 문자)을 교통 에콜로지 모빌리티 재단 표준 안내도 기호를 사용하여 만들고, 웹사이트에 예문을 음성파일(MP3파일)로 게재함.



〈재해 대응 예문과 픽토그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se00.htm](http://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3/03/20n3se00.htm))

([www.gotokyo.org/jp/administration/h24/saigaiji.html](http://www.gotokyo.org/jp/administration/h24/saigaiji.html))

## 도 시 환 경

### 4. 도시의 스모그를 흡수하여 안전한 물질로 변화시키는 건물 건축 (멕시코 멕시코시티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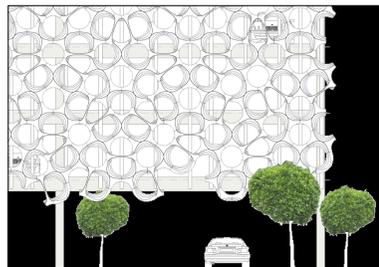
- 멕시코시티市에서 올해 4월 오픈예정인 한 병원의 외벽은 아름다운 디자인과 함께, 도시의 스모그를 흡수하여 안전한 물질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음.
  - 총 100m에 이르는 이 병원의 외벽은 산화타이타늄(Titanium dioxide,  $TiO_2$ )이 사용된 특수 소재로 만들었는데, 이 소재가 자외선에 의해 활성화되어 스모그를 다른 형태의 안전한 화학물질로 변화하도록 하여 하루 8,750대의 차량이 만들어 내는 스모그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멕시코정부 환경부의 지원으로 건설된 이 병원 건물의 외벽은 벌집을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독특한 모습은 건물 외벽이 자외선에 좀 더 노출되어 스모그와 반응하여

다른 물질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특수 디자인된 것임.

- 특수 코팅의 수명은 5~10년 정도로 일반 페인트와 비슷하게 다시 칠할 수 있음.
  - 이 특수 소재는 독일 ‘Elegant Embellishments’라는 회사가 개발하였으며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멕시코 정부와 멕시코시티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2조 2,000억 원을 조성하여 도시환경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멕시코시티市는 세계 최악의 오염된 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2012년에는 친환경 대중교통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왼쪽) 외벽의 이러한 디자인은 스모그가 좀 더 외벽의 특수 페인트와 결합하는데 도움을 줌, (오른쪽) 스모그를 제거해주는 특수소재를 사용한 멕시코시티 병원의 모습>



<(왼쪽) 건물 외벽에 사용되는 기본 프레임, (오른쪽) 조립방식으로 건물 외벽에 특수코팅소재를 설치하는 설계조감도>

([www.fastcoexist.com/1681660/this-beautiful-mexico-city-building-eats-t](http://www.fastcoexist.com/1681660/this-beautiful-mexico-city-building-eats-t)  
[he-city-smog?utm\\_source=twitter&utm\\_medium=feed&utm\\_campaign=](http://www.fastcoexist.com/1681660/this-beautiful-mexico-city-building-eats-t)  
[Feed%3A%20fastcompany/headlines%20%28Fast%20Company%29#1](http://www.fastcoexist.com/1681660/this-beautiful-mexico-city-building-eats-t))  
(<http://latino.foxnews.com/latino/lifestyle/2013/03/29/mexico-city-hospit>  
[al-eats-away-smog-pollution/](http://latino.foxnews.com/latino/lifestyle/2013/03/29/mexico-city-hospit))  
([http://prosolve.elegantembellishments.net/app\\_ceiling.htm](http://prosolve.elegantembellishments.net/app_ceiling.htm))

#### 시민 공모를 통해 맨홀 뚜껑 디자인 개선 (캐나다 밴쿠버市)

- 밴쿠버市는 빗물과 하수도 시스템을 2050년까지 완전히 분리할 계획으로 하수도 시설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 맨홀 뚜껑도 시민 공모를 통해 디자인을 개선하고 있음.
- 아래 그림은 맨홀 뚜껑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이미 3,000개 이상의 맨홀 뚜껑이 이 디자인으로 교체되었음.



(<http://vancouver.ca/home-property-development/previous-winners.aspx>)

([www.cultcase.com/2009/06/manhole-cover-designs-22-urban.html](http://www.cultcase.com/2009/06/manhole-cover-designs-22-urban.html))

([www.seattle.gov/light/neighborhoods/nh4\\_art.htm](http://www.seattle.gov/light/neighborhoods/nh4_art.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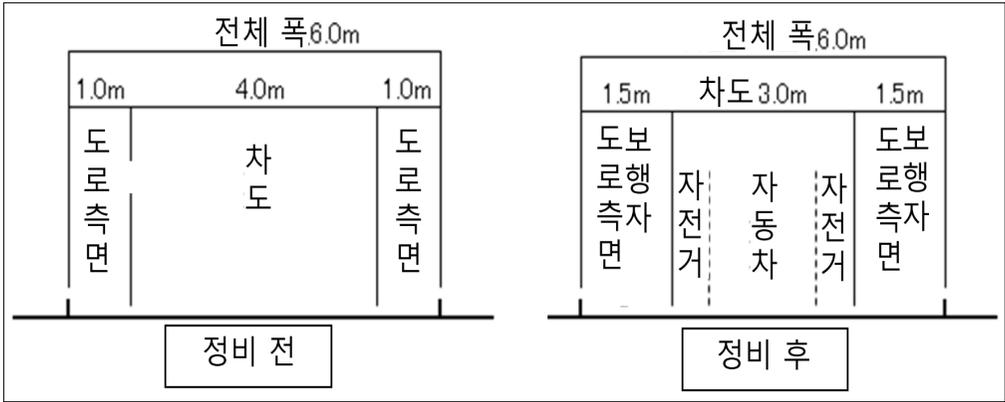
([www.ironcladart.ca/](http://www.ironcladart.ca/))

# 도 시 교 통

‘걸어서 즐거운 마을 존’ 사업 확대 및 공모를 통해 사업로고 선정 (일본 교토市)

- 교토市는 2010년 1월 “걷는 거리·교토” 종합교통전략 수립 이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거리를 걸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에 주력하여 왔음. 교토市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역사적 도심지구”인 시조우토오리(四條通), 카와라마치도오리(河原町通), 오이케도오리(御池通), 카라스마도오리(烏丸通)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걸어서 즐거운 마을 존’(歩いて楽しいまちなかゾーン)으로 지정하여, 보행자도로 확장, 자동차 서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걸어서 즐거운 마을 존” 사업이란 거리에서 안전하고 여유로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지역을 “걸어서 즐거운 마을 존”으로 지정하고, 교통관리자 등과 연계하여 차선폭의 축소, 자전거 통행구역 명시, “존”을 나타내는 간판 설치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 2012년 3월에 지정된 “걷는 마을 존(歩くまちゾーン)”의 실증실험에 이어, 역사적 도심지구의 서쪽 지역인 카라스마도오리(烏丸通)~토미노코우지도오리(富小路通) 간 거리로 실증실험지역을 확대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걷는 마을” 실증실험의 횡단 구성(2012년 3월 1일 ~ 3월 22일)〉



①실험 전  
(六角通烏丸東入ル)  
(북카구토오리 가라스마 동편)



②실험 중  
(자동차 통행 모습  
장소는 동일)



③실험 중  
(자전거 통행 모습  
장소는 동일)

〈“걷는 마을” 실증실험의 모습 (2012년 3월 1일 ~ 3월 22일)〉

- 사업 대상지역의 확대 및 사업 이미지 변경에 따라, 교토시는 “걸어서 즐거운 마을 존”의 사업 로고를 일반에게 공모하고 2013년 3월 최우수작품을 로고로 선정하였음.

- 이번에 선정된 로고의 전체 이미지는 한자의 ‘걸을 보(歩)’와 ‘웃는 얼굴’을 조합한 것으로, 기분 좋고 안전하게 거리를 걷는 모습을 표현하여 “걷는 거리 교토(歩くまち・京都)”를 단순하면서도 친근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음.
- 선정된 로고는 교토시의 역사적 도심지구 내에 설치하는 간판, 홍보물 등에 활용할 예정임.



〈‘걸어서 즐거운 마을 존’ 사업 로고〉

([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45413.html](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45413.html))

([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145/145413/logokouhou.pdf](http://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145/145413/logokouhou.pdf))

## 도시계획 · 주택

### 5. 육아안심맨션 인증제도 시행 (일본 오사카市)

- 오사카市는 2005년부터 육아세대의 주거지원 차원에서 “오사카市 육아안심맨션 인증제도(大阪市子育て安心マンション認定制度)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12건(3,138세대)의 맨션을 인증하였음.

<오사카市 육아안심맨션의 5대 특징과 내용>

구분	내용
편안해서 안심	아이의 성장에 따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집안의 내부구조 변경, 생활소음 방지,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등에 관한 4개 항목
편리해서 안심	유모차를 현관에 놓을 수 있는 공간 확보, 무거운 물건을 싣거나 아이를 태우고 자전거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공간 확보 등의 2개 항목
안전해서 안심	거실이나 주방에서 언제든지 자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구조 설계, 전복·손가락 끼임·감전 등 주택 내에서의 작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공간구조 구상, 맨션에서 추락방지·방범을 위한 침입방지·재해대책에 관한 대비 등 생활 속에서의 돌발사고 예방을 위한 4개 항목
즐거워서 안심	어린아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고, 엄마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맨션 실내·외에 교류공간 확보
여럿이라 안심	맨션의 일반사항 및 교류공간 확보 등의 구체적인 정비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맨션에서 육아서클 만들기, 이벤트 실시 등 육아에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적 아이디어 구상

- 육아안심맨션 거주자들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오사카市의 인증이 아파트 구입의 계기가 되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아파트라고 느끼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세대의 주거선택에 도움이 큰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오사카市는 2012년 1월 25일부터 육아안심맨션의 공급 확

대를 목표로 더욱 ‘알기 쉽고’, ‘이용이 용이한’ 제도로 개선하고, 2013년에는 추가로 인증맨션 건설계획의 승인과 함께 로고 개정을 실시하였음.

<(왼쪽)오사카市 육아안심맨션 이미지, (오른쪽)새로 개정된 오사카市 육아안심맨션 로고(전, 후)>

- 2013년 3월에 추가로 선정된 신축맨션(분양세대 272호, 2015년 분양예정)은 아이의 성장에 맞추어 구조변경이 쉽고, 구조물의 천장이 높으며, 구조물 간의 단차가 없는 등 육아세대가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를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어린이 놀이방에서 정기적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집에서는 할 수 없는 놀이를 자녀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거주자들 간의 네트워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오사카市는 육아안심맨션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 주택모기지 금리 인하 지원, 어린이 놀이방 및 어린이 놀이기구 등의 시설 설치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오사카市 육아안심맨션의 놀이방 및 놀이시설의 모습>

([www.osaka-takken.or.jp/whatsnew/2012/08/post-154.html](http://www.osaka-takken.or.jp/whatsnew/2012/08/post-154.html))

([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152967.html](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152967.html))

([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152/152967/illust.jpg](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cmsfiles/contents/0000152/152967/illust.jpg))

([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153746.html](http://www.city.osaka.lg.jp/toshiseibi/page/0000153746.html))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가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 시행(독일 바이에른州 레겐스부르크市)

- 레겐스부르크市와 바이에른州는 자가 주택 마련을 원하는 가정을 위해 저리(低利) 대출, 보조금 및 기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왔는데, 최근 주민이 주택을 신규 건축하거나 구입할 경우 추가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한 가정 규모별 소득한도 및 기타 조건은 다음과 같음.

가정 규모	연간 소득 한도
무자녀 1인 가정	28,100유로(약 4000만 원)
무자녀 2인 가정	42,400유로(약 6000만 원)
자녀가 한 명인 편부모 가정	43,900유로(약 6260만 원)
3인 가정 (1자녀)	53,100유로(약 7580만 원)
4인 가정 (2자녀)	63,900유로(약 9120만 원)
5인 이상 가정 (3자녀 이상)	74,600유로(약 1억 600만 원)

- 가정별로 주거 면적의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음. 예컨대 4인 가정의 경우 아파트는 100㎡까지, 단독주택은 130㎡까지의 주택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보조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착공되거나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택 역시 지원 대상에 해당함.
- 지원 대상 가정이 직접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지원만 가능함.
- 저리(低利)의 담보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자는 주택 가격의 20% 이상은 본인의 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바이에른州的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30% 또는 100,000유로(약 1억 4,3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상환 조건에 따라 1% 내외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함. 예컨대 10년 상환 조건의 경우 연이율은 1.75%가 적용됨.
- 바이에른州는 저리 대출 외에도 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해 유아 1인당 1,500유로(약 214만 원)의 보조금을 일시불로 지급함.
- 바이에른州의 지원 프로그램과 별개로 레겐스부르크市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市는 신규주택 건축 혹은 주택 구입에 대해 가정의 소득 여건에 따라 가정당 최대 18,000유로(약 2,56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함. 단, 이러한 보조금은 州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지원만으로는 주택 구입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해서만 지급함.

- 또한 市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 이 보조금은 주택의 신규 건축 시에는 자녀 1인당 5,000유로(약 713만 원), 기존 주택의 매입 시에는 자녀 1인당 3,000유로(약 428만 원)임.

(<http://www.regensburg.de/sixcms/media.php/121/stadt-regensburg-bei-uns-2013-2.pdf>)